

도메인, 인터넷키워드, 한글인터넷주소, 무선수자도메인, 음성도메인 등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주소자원이다. 이같은 인터넷 주소자원들은 그동안 선점을 통한 영리추구행위(사이버스쿼팅)로 많은 분쟁을 일으켰다.

### 상표권 침해·주소매점금지 등 주요 내용 선점된 불교도메인 되찾을 수 있을 듯

##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만든다

#### 정정부, 입법예고·공청회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국가적 관리체계를 명문화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9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립을 확대 강화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법정기관화,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이용촉진, 인터넷주소를 통한 상표권 침해 및 주소매점(사이버스쿼팅) 금지, 인터넷주소관련 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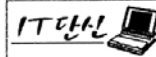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타종교단체나 개인이 대원(daewon), 해인사(haeinsa), 금산(kumsan), 마곡(magok) 등 60여건의 불교

고유명사 도메인을 이미 선점해 불교비방 등 사이버 훼손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 14조 금지행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국내에서 등기된 동일 상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인터넷주소 등록이 금지돼 타종교인의 불교관련 도메인 선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 18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등록말소 청구 등의 규정에 의해 불교고유명사 도메인들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이 종단에서 도메인 등록 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주소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 이상 인터넷주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앞으로 타종교인들에게 선점된 불교관련 도메인들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이법 위반의 마면으로 그동안 선점당했던 불교관련 인터넷 주소들을 되찾아 오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주권을 일정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개방 구제활동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 광운대총장)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성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1일부터 '사이버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를 '사이버 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www.cyberhumanrights.or.kr)로 개칭하고 관련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을 벌인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 및 성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상담 및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했으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 e-메일로 문서 받는다 데이콤, 1일부터 서비스

이전 팩스가 없어도 팩스로 보낸 텍스트 및 그림 디자인 등의 다양한 문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데이콤대표 박은서(www.dacom.net)는 '0505 개인팩스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팩스를 보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팩스를 통해 보낸 문서를 0505 개인팩스서비스에 등록된 자신의 e-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http://0505.dacom.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요금은 1분당 40원으로 발신자가 부담한다.

#### 개시판 연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착한 법이 있거나와 만약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금수와 더불어 다를 바 없다.

chopist, 프리셀 부처님 마을 자유게시판  
"이제는 누가 년 종교가 뭐니? 하구 물으면 짤에 다니다구 확실히 말할 수 있을꺼 같아.."

afirm, 프리셀 회개사의 청춘대중방  
"자신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극락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처럼 악한 사람도 살리는 세상의 선한 빛과 은혜를 보기에 극락세계를 보고, 극락세계에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박산에, 싸이월드 목우회 일반  
"말로서 문자로서 밝히려 하지 말라 그저 화두를 들어 정진할뿐 말이나 문자로 어찌할수없는 것이다"

작은성철, 성철넷게시판



#### 강화 전등사

지난 월드컵 기간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템플스테이)에서 외국인 250명 숙박, 총 5000명 방문으로 템플스테이 으뜸사찰로 평가받았던 강화 전등사. 외국인들과의 충분한 면담, 학교 및 지역축제와 연계활동, 외국대사관 및 지역언론 홍보, 우수한 통역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한 기획으로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홈페이지 개설 등 사찰

이를 알게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도 국내인들의 템플스테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만 받고 있으며 이들 신청자들은 별도의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DB화되고 있다.

전등사는 최근 일본어와 불어판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매개로한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어 홈페이지의 경우 자원봉사자인 한양대대학원 불어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승우씨가 관련내용을 번역중에 있고 일어도 전등사 기획국장인 궁인창씨를 비롯해 일부 종무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KT망 연결, 한·중·영어 홈페이지 운영 온·오프라인 통해 외규장각 도서 반환운동

사부대중의 정보화 인식도 큰 역할을 했다.

전등사는 현재 한국통신 매가페스가 사찰에 연결되어있고 종무소의 컴퓨터들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등 정보 인프라를 갖춘 상태. 이를 토대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버전의 홈페이지(www.jeondeungsang.org)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전등사 및 정족산 사교 소개, 전등사 예담이야기, 사이버 법당, 갤러리 등의 코너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등사는 물론 템플스테이와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월드컵 기간동안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외국인은 숙박예약 기관인 월드인과 함께 전등사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또한 사찰 종무와 관련된 조계종이 추천하는 가람지기 종무프로그램을 사용, 신도관리와 재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지역문화축제인 삼랑성 역사문화 축제를 매년 주관하고 있는 전등사는 삼랑성축제 홈페이지(http://www.art00.com/korean/samrang.html)를 별도로 개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에 약탈되어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펼치는 등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며 천년 고찰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하고 있다.



#### 신도 등 인적사항 DB작업 사찰정보화에 앞장설 것

주지 계성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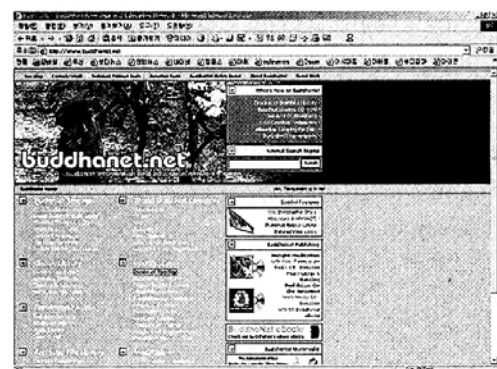
강화도 남단 정족산에 위치한 천연 고찰 전등사가 정보사회에 빨리 적응 할수 있었던 것은 주지 계성스님의 역할이 컸다. 컴퓨터하면 고개부터 흔들리는 계성스님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고 지역적으로 사찰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며 "앞으로도 사찰 정보화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다. 스님이 이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한 포교효과가 크기 때문.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전등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기초 데이터를 DB화해 인재네트워크를 구성, 사찰 정보화에 앞장나 갈 방침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문제는 언제나 지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서울 종로구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 해의불교사이트 순례



파나바로스님의 www.buddhanet.net

불교 교육 네트워크 '붓다넷' (www.buddhanet.net)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호주불교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붓다넷이 최근 더부살이를 마치고 독립도메인을 갖는 등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파나바로스님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호주불교를 알리고, 정보

불교강좌 코너에서는 기초불교 가이드, 온라인 불교공부 가이드, 학교를 위한 불교공부, 불경, 불교의 가르침, 불교 세계, 불교 역사와 문화 등의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놓고 있다. eBook 도서관에서는 일반 불교, 명상방법, 소송의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등에 관련된 전자북들

을 볼 수 있다. eBook과 더불어 오디오 서비스도 한다. 찬불가 모음, 명상 음악, 오디오 도서관, 다르마 이야기 등 음악, 법문 등을 망라하고 있다. 공문서 도서관에는 불교관련 그래픽, 리스트 파일이 가득하다. 세계 불교디렉토리에서는 미국, 유럽,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불교 관련 단체 연락처와 명상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붓다넷이 자랑하는 콘텐츠는 바로 불교웹진 붓다진. 붓다진은 오늘의 명언을

#### 호주불교 홍보·교리·명상 관련정보 네티즌에 제공

비롯해 크로스워드 퍼즐, 불교 회극, 사진 기록 영화, 최면 등 정신요법 및 명상, 불교 안의 여성, 붓다넷 어린이, 잡지 기사, 컴퓨터 아트 갤러리, 불교예술 및 건축, 칼라차크라 시간의 바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강지연 기자 lycang@buddhania.com

##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 최면전생 특강 내용

- (1) 최면으로 하는 제정 천도(度)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靈)나 병의령(靈依靈)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 (3) 원력 제정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기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기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기(靈氣)를 불러내어 제정 천도하는 기법. 영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운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이미포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교원으로 재직



최영식(100 미래 연구소)  
그 사실을 봤다면 입력이 돼 있거든요. 입력이 돼 있다면 눈이 렌즈이기 때문이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호기심천국에서 방송

##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